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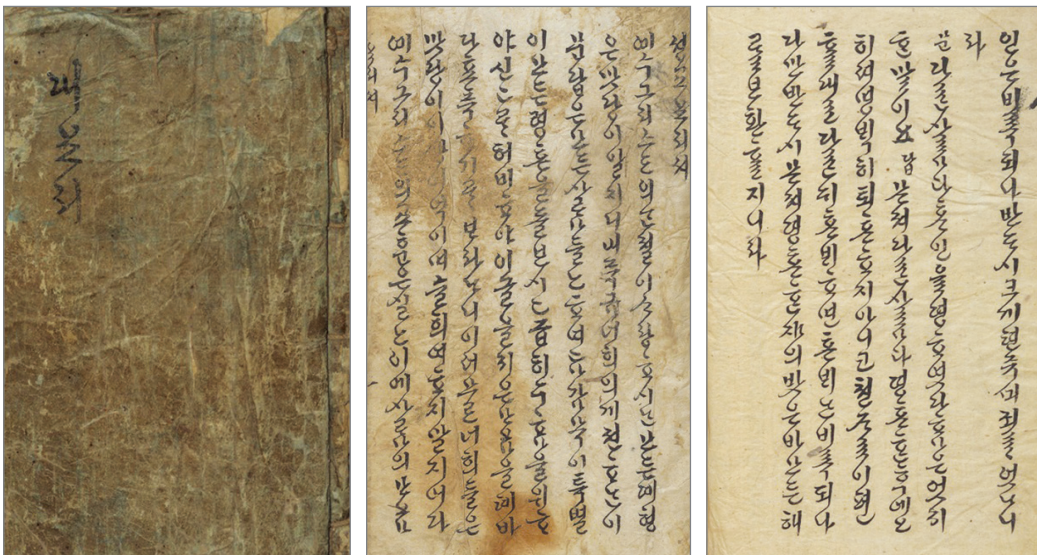
비(非)공식 교리문답서, 『성교요리』 필사본을 다시 들여다보다 (3)

- 한글번역본(필사 『성교요리』 서문과 한문본(인쇄 『聖教要理』 서문[序]을 비교하다 -

지난 3월호와 4월호에서 필자는 ‘윤봉문 후손 기증본’ 필사본이 『성교요리(성교요리)』, 또는 『聖教要理大問答』이라는 제목의 교리문답서와 동일한 내용의 책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성교요리』 필사본이 한문서적의 번역본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중국에서 간행된 한문 교회서적들을 검색한 결과, 필사본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聖教要理(성교요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문본 『聖教要理』는 『法國國家圖書館 明清天主教文獻』(鐘鳴巨·杜鼎克·蒙曦 主編, 台北市: 台北利氏學社, 2009.9, 영인본 전26책) 중 제24책(171번, 383~488쪽)[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도서분류번호 Chinois-7246]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필자는 저자와 간행 연도를 모르는 『聖教要理』와 『성교요리』 한글 필사본의 서문, 편제[소재 목], 문답 내용을 비교했고, 그 내용을 도표화하여 4월호에 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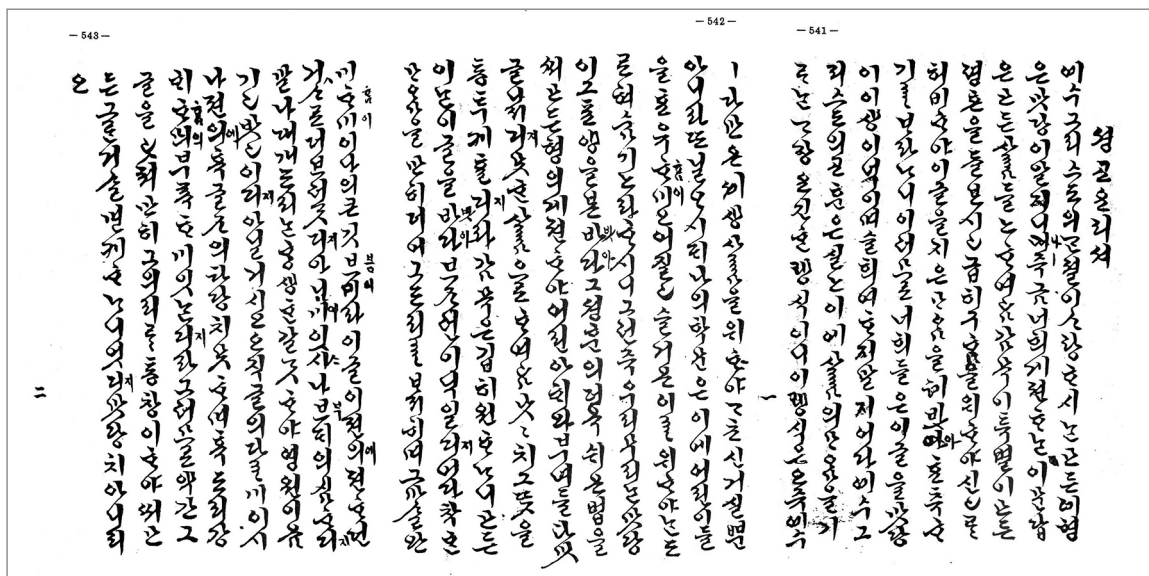
또한, 『성교요리』 한글 필사본을 검색·확인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호까지 6종의 필사본을 확인했는데, 양업교회사연구소 소장 『성교요리』(표지 ‘대요리’)를 새로 확인하여 모두 7종의 필사본을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 『성교요리』와 동일 내용으로 추정되는 필사본 책들도 몇 권 더 확인했는데, 나중에 직접 서책을 검토·비교할 예정입니다.



『성교요리』(표지 ‘대요리’) [양업교회사연구소 소장] - 표지, 서문, 내용 마지막장 [왼쪽부터]

이번 호에서는 『성교요리』 한글 필사본의 서문과 한문본 『聖教要理』의 서문[聖教要理序]을 비교·대조하여 한글 필사본의 번역 저본이 『聖教要理』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한글 필사본 중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1886년 필사본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성교요리』 서문의 영인본과 판독본[*떠어쓰기 - 필자]



성교요리 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절이 사랑하시는 모든 데형은 맛당이 알지니, 나ㅣ 즉금 너희게 전
 하는 이 문답은 모든 사름들도 하여곰 감목이 특별이 모든 령훈을 돌보시고 급히 구흠을
 위하여 신고를 허비하여 이 글을 지은 무음을 태받아 효측하기를 바라나니, 이리므로 너
 희들은 이 글을 맛당이 이상이 녀이며 슬희여 하지 말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실
 노 이에 사름의 무음을 기르는 가장 요긴한 량식이니 이 량식은 오쥬 예수ㅣ 다만 온 세
 상 사름을 위하여 7초신 거실뿐 아니라, 또 날으시디 ‘나의 학문은 이에 어린이들을 효
 유희이오 어질고 슬거운 이를 위하여는 도로혀 숨기노라’ 하시니, 그런즉 우리 무리는 맛
 당이 그 표양을 본받아 그 성훈의 더욱 쉬운 법을 써 모든 형의게 전하여 어린 아히와 부
 녀들과 밋 글 넘지 못한 사름으로 하여곰 낫치 그 뜻을 통투케 할지라. 감목은 곱히 원
 하시니 모든 이는 이 글을 받아 브즈런이 닉일지어라. 착한 무음을 만히 더어 그 도리를
 밝히며 그 마술 완미함이 이 나의 큰 기쁨이라. 이 글이 전에 전하던 것으로 더브러 곱지
 아님이 있스나 부디 의심하지 말나. 대개 도리는 흥상 한갈곳하여 영원이 움기고 밝고이
 지 아닐 것이오. 오직 글의 다름이 이시나 전에 혹 글주의 타당치 못하며 혹 도리 강히함
 의 부족함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약간 그 글을 곱쳐 만히 그 의리를 통창이 하여 써 모든
 그런 거술 면케 하시니 엇지 맛당치 아니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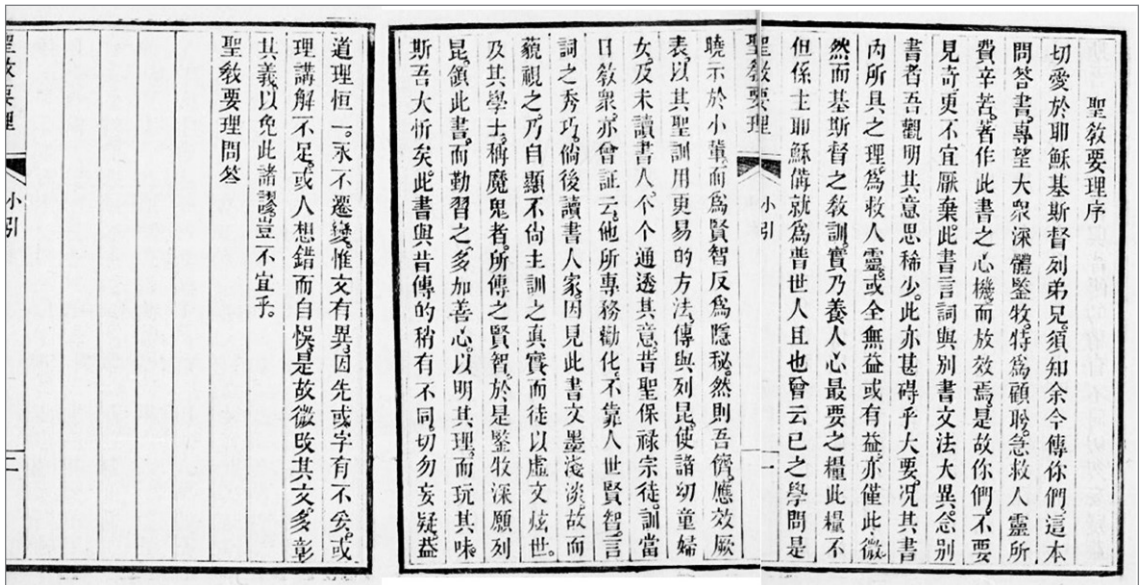
『성교요리』 서문[*한글현대어 표기, 한자 병기, 협주 첨가]과 『聖教要理』 서문[序]의 대조 비교

<p>[541쪽] 예수(耶穌) 그리스도(基督)의 간절히 사랑하시는 모든 제형(弟兄)은 마땅히 알지니,</p>	<p>[小引 1a] 切愛於耶穌基督列弟兄 須知</p>
<p>내가 즉금(卽今, 지금) 너희[에]에 전하는 이 문답(問答)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감목(監牧, 주교)이 특별히 모든 영혼을 돌보시고 급히 구함을 위하여 신고(辛苦, 수고로움)를 허비하여 이 글을 지은 마음을 체반아[모방하여] 효칙(效則, 본받아 따름)하기를 바라나니, 이러므로 너희들은 이 글을 마땅히 이상히 여기며 싫어하지 말지어라.</p>	<p>余今傳你們這本問答書 專望大眾深體鑒牧 特爲顧盼 急救人靈 所費辛苦 著作此書之心機 而放效焉 是故你們不要見奇 更不宜厭棄</p>
<p>[*한글 필사본에서 생략된 부분] (필자 번역) 이 책의 언사(言詞, 말과 그 의미)는 다른 책의 문법(文法, 문장 쓰는 방식)과 크게 다르다. 다른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보아도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 또한 [교리의] 큰 요체를 파악하는 데 심대한 방해가 된다. 하물며 그 책 안에 담긴 이치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전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이 있더라도 지극히 미미할 뿐이었다. 그렇지만</p>	<p>此書言詞 與別書 文法大異 念別書者 吾觀明其意思 稀少 此亦甚碍乎大要 況其書內所具之理 爲救人靈 或全無益 或有益亦僅此微 然而</p>
<p>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실로 이에 사람의 마음을 기르는 가장 요긴한 양식(糧食)이니 이 양식은 오주(吾主) 예수[542쪽]가 다만 온 세상 사람을 위하여 갖추신 것일뿐 아니라</p>	<p>基督之教訓 實乃養人心最要之糧 此糧不但係主耶穌備就爲普世人</p>
<p>또 이르시되 ‘나의 학문은 이에 어린이들을 효유(曉諭, 깨우쳐 알려 줌)함이고 어질고 슬기로운 이를 위하여는 도리어 숨기노라’ 하시니,</p>	<p>且也會云 己之學問是[小引 1b]曉示於小輩 而爲賢智反爲隱祕</p>
<p>그러즉 우리 무리는 마땅히 그 표양을 본받아 그 성훈(聖訓)의 더욱 쉬운 법을 써[서] 모든 형(列昆)에게 전하여 어린 아해(兒孩, 아이)와 부녀들과 및 글 읽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낱낱이 그 뜻을 통투(通透, 두루두루 꿰뚫어 알게 함)케 할지라.</p>	<p>然則吾儕應效厥表 以其聖訓用更易的方法傳與列昆 使諸幼童婦女及未讀書人 个个通透其意</p>
<p>[*한글 필사본에서 생략된 부분] (필자 번역) 예전에 성 바오로 사도가 당시의 신자들(敎衆)을 가르칠 때 증언하기를, ‘그가 오로지 전교(勸化)에 힘쓴 것은 인간 세상의 뛰어난 지혜나 말솜씨의 빼어남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였다. 만일 훗날 글을 읽는 [유식한] 사람들이 이 책[성교요리]의 문장이 얇고 담박한 것을 보고 멸시한다면, 이는 곧 스스로 주님의 가르침의 진실함을 숭상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단지 헛된 문장으로 세상에 자랑하려는 것이고, 그 학자들이 말하는 마귀가 전하는 [간교한] 지혜일 뿐이다. 그러므로</p>	<p>昔聖保祿宗徒訓當日敎衆 亦會証云 他所專務勸化 不靠人世賢智言詞之秀巧 倘後讀書人家 因見此書文墨淺淡 故而藐視之 乃自顯不尙主訓之真實 而徒以虛文炫世 及其學士稱魔鬼者所傳之賢智 於是</p>
<p>감목은 깊이 원하나니 모든 이는 이 글[성교요리]을 받아 부지런히 익힐지어라. 착한 마음을 많이 더해 그 도리를 밝히며 그 맛을 완 [543쪽]미함이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라.</p>	<p>鑒牧深願列昆領此書 而勤習之 多加善心 以明其理 而玩其味 斯吾大忻矣</p>
<p>이 글이 전에 전하던 것[예전의 문답서]으로 더불어 갈지 아님이 있으나 부디 의심하지 말라. 대개 도리는 항상 한결같아[한결같아서] 영원히 옳고 바뀌지 아닐 것이오. 오직 글의 다름이 있으나 [예]전에 혹 글자의 타당치 못하며 혹 도리 강해(講解, 설명과 풀이)함에 부족함이 있는지라.</p>	<p>此書與昔傳的稍有不同 切勿妄疑 蓋[小引 2a]道理恒一 永不遷變 惟文有異 因先或字有不妥 或理講解不足</p>

<p>[*한글 필사본에서 생략된 부분] (필자 번역) 혹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여 스스로 오해하기도 하였다.</p>	<p>或人想錯而自誤</p>
<p>그러므로 약간 그 글을 고쳐, 많이 그 의리를 통창(通彰, 꿰뚫어 뚜렷하게 밝힘)히 하여 [그로]써 모든 그른 것을 면(免)케 하니 어찌 마땅치 아니리오.</p>	<p>是故微改其文 多彰其義 以免此諸謬 豈不宜乎</p>

위와 같이 『성교요리』 한글 필사본의 서문과 한문본 『聖敎要理』의 서문(聖敎要理序)을 비교·대조한 결과 한글 필사본이 한문본을 충실하게 번역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한글 필사본이 한문본을 ‘완역’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일부 내용을 빼고 번역했다는 점입니다. 번역자나 이를 지휘·감독했을 선교사제가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 필사본뿐 아니라 ‘윤봉문 후손 기증본’ 등 다른 한글 필사본의 서문에서도 똑같이 해당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에도 하나의 정본(定本)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봉문 후손 기증본’에는 위의 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과 다른 단어나 문장 서술이 확인되기 때문에 필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 또는 오기(誤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필사본 간의 비교·대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요리』 한문본(Chinois-7246)의 서문 ‘聖敎要理序’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 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